광주 북구 '5대 범죄' 가장 많다

2008년~올 상반기 1만7905건 … 인구 많고 경찰인력 적어

인구대비론 동구 최다

지난 2008년 이후 광주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비율로 환산하면 동구가 가장 많았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찰서별 '2008년~2010년 상반기(1월~6월) 5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지난 2년간 5대 범죄 발생건수(1만4327건)가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3578건으로 최다였다.

인구 1000명당 비율로 따지면 동부경찰서가 25.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부경찰서 16.21명 ▲북부경찰서 12.66명 ▲광산경찰서 11.29명 ▲남부경찰서 10.77명 등의 순이었다.

5대 범죄는 유흥가를 많이 둔 관할 구역의 경찰서에서 많이 벌어졌다.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경찰서 1·2위는 북부와 서부였다.

■ 5대 범죄 경찰서별 발생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6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합계	3,337	6,115	2,757	6,902	4,583	3,508	6,247	2,872	7,425	4,277	1,404	2,336	1,227	3,578	2,215
살인	3	6	2	7	1	3	5	1	15	8	2	4	3	3	4
강도	11	19	21	41	17	17	32	10	56	16	16	23	11	39	7
강간	46	81	46	87	76	58	104	30	112	63	30	52	19	64	33
절도	1,505	2,838	1,430	4,155	2,260	1,783	3,082	1,618	3,843	1,978	609	1,028	718	1,898	1,209
폭력	1,772	3,171	1,258	2,612	2,229	1,647	3,024	1,213	3,399	2,212	747	1,229	476	1,574	962

올해 상반기의 경우 북부경찰서 다음으로는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동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순이었다.

강력 범죄 발생건수 1~4위가 모두 용봉·상무·첨단지구·충장로 등 유흥지구를 낀 경찰서들이다.

이들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이유는 관할 지역 내 인구에 비해 경찰관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서의 치안 역량을 보여 주는 지표인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산경찰서로 757.77명이다. 북부경찰서는 729.86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500명(올해 2월 말 현재)이다. 경찰서가 관할하는 인구와 범죄 발생이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광산경찰서와 동부경찰서가 잘 보여준다.

2008년 경찰관 수가 463명이었던 광산경찰서는 이듬해 30명 증원한 결과 범죄발생 건수는 4583건에서 4277건으로 306건 줄어들었다. 반면, 동부경찰서는 같은 기간 경찰관 수를 13명을 감소했는데, 범죄발생 건수가 171건이나 늘었다.

지난해 동부·서부·남부·광산경찰서는 전년대비 폭력사건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절도 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각 경찰서별 주요 범죄 현황·특성을 분석, '범죄지도'를 만들어 범죄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 범죄 발생은 도심화 정도, 인구밀도, 유흥업소, 방범 및 치안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돼 있으며 지역 안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매월 강·절도 등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분석,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태풍에 쓰러진 팽나무 11일 새벽 태풍 '뎬무'가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광양시 광양읍 내오마을 입구의 120년생 팽나무가 쓰러져 나무 밑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불법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실형

태아 2명 살해지시 병원 사무장 징역 2년6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김성우 판사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이모(50·병원 사무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건의 낙태수술을 하는 등 낙태규모, 이득액 등에서 일반적인 불법 낙태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내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씨가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A양(15)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임신 31주된 B씨의 낙태수술을 하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간호사가 이를 거부해 아기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연합뉴스

아파트 8층에 불 50대 추락 숨져

11일 오전 10시 3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8층 A(50)씨의 집에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아파트 뒤편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또 이날 화재로 아파트 거실 등 내부 77.69㎡가 불에 타 1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정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유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화재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 '과충전' LPG 택시 일제점검

광주지역 LPG 택시도 폭발 위험이 있다는 지적〈본보 8월 11일 6면〉과 관련, 광주시가 과충전방지 밸브를 떼어내고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0일까지 10일간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76개 운수업체에 과충전방지 밸브·연료 탱크 구조변경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정비업소·LPG 충전소·영업용 및 개인택시를 상대로 과충전방지 밸브 및 연료 탱크를 조작한 사례와 과충전을 요구하는 운전기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취업 미끼 2500만원 뜯은 5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부모로부터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을 받아 챙긴 이모(54·광주시 동구 대인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초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A호프집에서 김모(58·광주시 동구 산수동)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현금 1900만원과 백화점상품권 600만원어치 등 총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 6범인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씨에게 "형이 공기업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들을 서울 본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리산 계곡서 물놀이 초등생 50여m 떠내려갔다 극적 구조

태풍 '뎬무'가 지나간 지리산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이 계곡물에 떠내려갔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11일 오후 1시 50분께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월계마을 쇠작골 산장 아래 계곡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온 강모(13·서울시 송파구)양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계곡물에 휩쓸려 50여m를 떠내려갔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곡 아래로 떠내려가던 강양은 다행히 바위를 붙잡은 채 10여 분간을 버티다 전남소방본부 산하 산악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강양은 몸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0~11일 지리산 주변에는 백운산 282㎜, 노고단 244.5㎜, 피아골 218㎜ 등의 폭우가 쏟아졌다.

산악구조대 관계자는 "태풍으로 계곡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을 당할 수 있었다"면서 "강양이 어린 나이에도 침착하게 대처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태풍 '뎬무' 침수 피해 점검하다…

여수 공무원 차량끼리 충돌 2명 부상

제4호 태풍 '뎬무'의 북상으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탄 차량이 충돌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7시5분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모정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여수시 돌산읍사무소 부읍장 이모(50)씨가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산업계장 이모(49)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산업계장 이씨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쳤으며, 부읍장 이씨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어 광주의 한 대학병원과 여수의 한 병원으로 각각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계장 이씨는 태풍 '뎬무'의 영향으로 지역내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됐는지 점검하고 복귀하던 중이었으며, 부읍장 이씨는 돌산읍에 있는 진모축구장 인근 도로가 침수됐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점검하러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여수에는 78.5㎜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한때 23㎧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를 선 뒤 지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태풍 '뎬무' 왜 힘 못썼나

수증기 공급 줄어 세력 약화 중국 쪽서 편서풍이 밀어내

3년 만에 광주·전남을 관통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던 제4호 태풍 '뎬무(DIAN-MU)'가 예상과는 달리 별 힘을 쓰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태풍은 11일 새벽 5시께 고흥반도 남단 도화면 부근에 상륙한 뒤 23㎞/h의 속도로 북동진했으며, 부산에 이르러서는 33㎞/h로 빨라지며 동해상으로 물러났다.

기상청은 당초 태풍이 11일 새벽 3시께 서귀포 북서쪽 약 90㎞ 부근 해상에서 19㎞/h로 이동, 이날 오후 3시께 여수 북쪽 약 60㎞ 부근 육상을 21㎞/h 속도로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태풍은 광주·전남에 별 피해를 입히지 않고 11일 오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뎬무가 비교적 고위도 해상인 타이완(臺灣) 동쪽에서 발생한 뒤 바로 북상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비교적 약하고 작은 태풍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면서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지면의 마찰에 의해 점차 강도가 약화됐으며,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태풍으로 장흥군 회진면 해안 저지대 상가 4채와 주택 1채, 완도군 주택 3채, 보성군 회진면 주택 1채, 여수시 봉산동 한재도로변 3개 도로가 침수됐으며, 여수·순천·장흥·진도 등지의 농경지 80.8ha가 물에 잠겼다. 여수시 신기동과 광양읍 등에서 고목이 쓰러졌으며 광주에서 가로수 1그루가 넘어진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10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보성 201㎜, 순천 156.5㎜, 여수·곡성 150.5㎜, 장흥 149㎜, 해남 129㎜, 강진 124㎜, 완도 123㎜, 구례 122㎜, 광주 57㎜를 기록했다.

한편, 태풍이 물러간 후 이틀 동안 주춤했던 무더위는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점 알바생에 음란 동영상 전송

○…단골 주점 20대 아르바이트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알아내 음란 동영상을 보낸 4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46)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1분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평소 자주 이용하던 주점 아르바이트생 A(여·28)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는 것.

○…경찰에서 최씨는 "A씨와 친분이 있어서 장난 좀 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사결과 최씨와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